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개혁적인 도덕 철학 체계 연구*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Reformatory Moral Philosophy System

김성철** / 강민구***

국문요약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영조 38년부터 정조와 순조의 통치시기를 지나 현종 2년에 이르는 정치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무질서하고 당파싸움이 극심했던 시기에 생존하였다.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다산은 당시 사회의 교조적 질서 및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주자성리학과 이기론에서 찾았다. 다산은 주자학의 근본원리인 '무위'와 이기론을 비판하고, 주자성리학은 원시유교와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그 자리에 순수한 공맹의 가르침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우선 유교의 경전체제를 재정비하여 당시의 사서삼경 체제에 『춘추』, 『예』, 『악』의 삼경을 더하여 육경사서 체제로 확충하였다. 그의 경학이란 이 육경사서의 전반에 대한 치밀한 해석과 방대한 주석을 의미한다. 경세학은 흔히 '정치경제학'으로 여겨진다. 다산은 지인과 안민을 경세학의 두 기둥으로 이해하였다. 지인은 인재를 능력에 따라 적제적소에 기용하는 것, 안민은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경세의 주요책무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도덕 철학체계에서 경학, 예학 그리고 경세학은 모두 동시에 수기와 치인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산에 따르면 경세학은 예학과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예학이자 경학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산의 학문을 크게 경학과 경세학으로 구분하여 다산의 개혁적인 도덕철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핵심어 다산 정약용, 도덕철학체계, 육경사서, 경학, 경세학

* 이 논문은 세한대학교 2023학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제1저자).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교신저자).

차례

1. 서론
2. 상제신학—인격적 절대자,
도덕적 감시자로서의 상제
3. 윤리학—도덕적 실천의 기본원리, ‘인’과 ‘서’
4. 법학—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치인의 민권사상
5. 경제학—나라와 개인을 안전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부국강병
6. 결론

1. 서론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생존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인 영조 38년부터 정조와 순조의 통치시기를 지나 헌종 2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사대와 자주,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임진왜란¹⁵⁹²⁻¹⁵⁹⁸과 병자호란¹⁶³⁶의 물질적, 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시대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도 실질과 실용보다는 명분과 형식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의 만연, 명분과 주장의 차이에 따른 과당의 형성과 세습, 그리고 일상화된 비생산적 당쟁, 행정적 실무에는 무능하고 가혹한 세금수탈을 일삼은 관리들의 득세, 부패한 관료들과 유착된 지방의 큰 세력가와 상인들의 협잡과 농간, 국력의 고갈과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절망적인 백성들의 삶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이 다산이 당면한 조선후기의 현실이었다. 백성이 죽고 나라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위중한 국란의 핵심적인 원인을 다산은 당시 사회의 교조적 질서 및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주자성리학과 이기론⁰¹에

서 찾았다. 다산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주자학에 부딪치어 주자학의 근본원리인 ‘무위’와 이 기론을 비판하고, 주자성리학은 원시유교와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그 자리에 순수한 공맹의 가르침이 다시 세워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현실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인격적 수양보다는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더욱 중시하여 철저하게 공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공동체중심의 사고를 견지하였다. 다산은 주희의 무기력한 ‘무위이치’의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능동적 실천 및 조작을 강조하는 요순의 강력한 ‘유위이치’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⁰² 중국역사상 황금시기로 알려진 요순시대는 결코 통치자의 덕화를 널리 퍼서 자연스레 다스려진 시대가 아니고 통치자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다산은 오히려 요순시대야말로 공리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으로 통치되

01 “도가는 자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인간에는 무관심했다. 이에 반해 유가는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자연에는 무관심했다. 도가는 비인간적 자연의 도, 즉 물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유가는 비인간적 인간의 도, 즉 도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도의 사용법이 주희에 의해서 ‘이’로 통합되면서 ‘이’ 개념에는 인간 세계의 당위의 규범으로서의 윤리적 성격과, 자연세계의 조직원리로서의 물리적 성격이 뒤섞이게 되었다. 이것이 다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무관심했던 불교의 선협적 관념론의 영향을 받아 형이상학의 ‘이’로 정착되었다. 주희는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이’가 음양오행과 같은 형이하의 ‘기’와 만나 생성/변화하는 장대한 무대로 파악하였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이기론이다. 이기론은 결국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와 ‘기’ 가운데 어떤 계기에 선행성과 우월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구분된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 즉, ‘기’가 자기조직적 실재라는 주장이 주기론이며, 모든 개별적 생성/변화의 과정이 조직원리, 즉 ‘이’의 보편성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주리론이다. 이 양자의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무익한 형이상학적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것은 특히 자연과학의 발달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이원론자인 주희는 주리론의 입장을 선호하였다. 주리론적 이기론은 보편적 원리인 ‘이’를 개별적 자기조직의 원리의 ‘기’보다 존재와 가치의 측면에서 우선적이며 우월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실증적 탐구보다 보편적 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희는 인간을 포함한 천리 만물이 동등한 ‘이’를 공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 측면에서 인간과 식물, 동물 등을 존재론적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실재로 간주한다. 다산의 사유는 지금까지 요약한 주희의 형이상학적 철학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산은 주리론의 입장과는 반대로 실체인 ‘기’가 속성에 불과한 ‘이’보다 존재의 형식에서 앞서고 가치의 측면에서 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인간을 신형 모함한 존재로,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정신이 육체와 모호하게 합쳐져 하나로 조화를 이룬 특이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초목이나 금수와 같을 수 없고, 천인합일은 정당한 관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기, 『다산 정약옹과 아담 스미스』, 백산서당, 2008, 105~108쪽.

02 박홍기, 위의 책, 118쪽.

었고, 요순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작위적 개혁의 프로젝트실행을 성공시킨 가장 열정적인 작위와 개혁의 인물, 법치의 달인으로 평가하였다.⁰³ 그는 위정자들이 요순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유위, 작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도덕철학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 다산은 일생동안 『주례』의 구도에 따라 요, 순, 주공, 공자의 세계, 다시 말해 부국강병의 확고한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효/제/자의 도덕적 공동체를 조선사회에 다시 구현하겠다는 사상적, 학문적 열망을 가졌다.

다산은 주자성리학적 이기철학에 반대하여 공맹의 원시유교로 회귀하려던 유학자, 서학과 천주교의 영향 속에서 유학을 새롭게 펼쳐 보인 철학자, 중세기적인 세계관에 종말을 예고했던 근대적 실학자이다.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유배시절 후기인 1810년 이후에 철학적 경학 저술서와 실용학 관련 일표이서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이 수정 / 심화되거나 편집 / 저술되었다. 다산은 우선 유교의 경전체제를 재정비하여 당시 통용되고 있던 사서삼경 체제에 『춘추』, 『예』, 『악』의 삼경을 더하여 육경사서 체제로 확충하였다. 그의 경학이란 이 육경사서의 전반에 대한 치밀한 해석과 방대한 주석을 의미한다. 다산은 당시 지식인 집단인 유학자들을 설득하여 법제도 개혁의 실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경학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다산의 새로운 경전해석에는 인간의 사고와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높은 뜻이 있다. 여기에는 중세사회의 무서운 봉건주의적 신분제도의 철폐를 선도하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⁰⁴ 군자의 학문의 절반인 수기의 학은 육경사서를 연구함으로써 달성하고, 나머지 절반인 치인은 조정에서 벼슬살이로 자신의 제세경

03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다산 철학의 근대성 연구』, 서광사, 2001, 138쪽.

04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493쪽.

를 펼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천하를 다스렸다’는 다산의 말은 유형자라는 신분제약으로 18년 동안 이루지 못한 관직등용의 꿈 실현을 ‘일표이서’로 대신했다는 의미이다. 다산의 경세학은 흔히 ‘정치경제학’으로 여겨진다. 그는 지인과 안민을 경세학의 두 기둥으로 이해하였다. 지인은 인재를 능력에 따라 적제적소에 기용하는 것, 안민은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경제의 주요책무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인과 안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다산의 의지가 이른바 일표이서로 구체화된 것이고, 특히 지인과 안민의 실현을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 『경세유표』에 담겨 있다.⁰⁵

다산은 자신의 학문이 크게 경학과 경세학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그가 연구한 여러 저서를 분석하여 좀 더 세분해 본다면 그의 도덕철학체계는 경학, 예학, 경세학 그리고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⁰⁶ 그의 경학, 예학 그리고 경세학은 모두 동시에 수기와 치인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세유표』의 원명이 『방례초본』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세학은 예학과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예학이자 경학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산의 도덕철학체계를 이루는 신학, 윤리학, 법학과 경세학 등 각 학문의 성격과 의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여 그의 개혁적인 도덕철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05 송재소, 「다산 경세론의 인문학적 기반」, 송재소 외, 『다산 정약용 연구-실시사서 실학연구총서2』, 사람의무늬, 2013, 56~57쪽.

06 금장태, 「다산의 유학사상과 서학사상」, 최석우 외,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 다섯수레, 1993, 81~88쪽.

2. 상제신학— 인격적 절대자, 도덕적 감시자로서의 상제

‘상제와 하늘’은 다산 정약용의 도덕철학의 출발점이자 추동력이다. 상제신학은 사회의 능동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천지향적인 새로운 도덕철학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개념이다. 다산은 인격성을 결여한 ‘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선행으로 이끌 수 있는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두려움의 근거가 되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몸과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닌 하늘”⁰⁷, 즉 상제를 다산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격적 절대자로 파악하였다.

상제란 무엇인가? 이는 하늘과 땅, 귀신과 인간을 초월해 있으면서 하늘, 땅, 귀신, 인간과 만물을 조화하고 재제하여 안양하는 자이다.⁰⁸

우선, 다산의 상제는 조화자이고 주재자이며 만물을 두루 보살피고 길러 주는 초월적 인격신이다.⁰⁹ 둘째, 전지전능한 상제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심판하고 현실적인 상벌과 화복을 내리는 왕과 같은 강력한 존재로 천주교의 천주와는 달리 사후의 천당과 지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다산의 상제는 천주와 고경의 상제보다 훨씬 엄격한 인간에 대한 도덕적 감시 기능을 맡고 있다.¹⁰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격적 존재로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사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¹¹ 상제에 대한 다산의 믿음은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올바른

07 박흥기, 앞의 책, 192쪽 재인용.

08 박흥기, 앞의 책, 192쪽 재인용.

09 여기에서 ‘조화’는 흔히 ‘창조’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0 이동환, 「다산 사상에 있어서의 ‘상제’ 문제」, 『민족문화』 19, 민족문화연구소, 1996, 25~26쪽.

른 삶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일탈을 감시하며 행위의 결과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리는 상제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소위 ‘윤리적 논증’에 바탕을 둔다.¹² 인간 내면의 도덕적 타락을 막고 도심을 통해 위에서 굽어보는 도덕적 감시자 혹은 조력자로서의 상제와 귀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착한 본성을 부여하였다.¹³ 이런 본성은 항상 선을 지향하고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마음이 도심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심은 곧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제는 인간에게 정신과 육체, 도심과 인심 그리고 주체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여 하늘에 대한 두려움의 심성을 갖도록 한다. 모든 악행은 도심의 권유, 즉 천명에 어긋나는 선택의 결과이다. 인간은 선택적 악행으로 하늘에 지은 죄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늘의 뜻대로 선하게 행동했을 경우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안한 마음과 경고에 거슬러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의 수치심과 후회하는 마음이 하늘이 내리는 심판, 즉 상과 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선과 악, 그리고 도심과 인심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자를 결정하는 존재는 상제가 아니라 인간이다.

다산의 신학은 그의 개혁적인 도덕철학체계의 바탕을 이룬다. 그의 신학은 나라위정자들의 부정부패나 부도덕을 일소하고 도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절박한 윤리사상을 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신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다산 윤리학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본다.

11 성태용, 「다산 철학에서의 계시 없는 상제」, 『다산학』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04, 116~118쪽.

12 장승구, 앞의 책, 67~69쪽.

13 박흥기, 앞의 책, 198쪽 재인용.

3. 윤리학- 도덕적 실천의 기본원리, '인'과 '서'

다산은 성리학의 그릇된 수양공부에 치우쳐 능동적 실천의 의지를 상실하고 은사를 자처하며 무위의 삶에 안주해 있는 지식인들을 일깨워 개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첫 처방이 앞서 살펴본 상제의 도입이었고, 다음 처방은 성리학적 윤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윤리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 또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행사가 윤리학의 진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¹⁴ 경학의 핵심이며, 경학과 경제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다산의 윤리학은 인격적 상제, 공자의 행사, 맹자의 성선설과 사단설로부터의 성기호설 그리고 실천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덕행 등 여러 개념을 기반으로 정립되었다.¹⁵

다산은 형이상학화된 성리학의 덕을 오로지 사회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는 맹자의 본뜻에 따라 인 / 의 / 예 / 지의 사덕이 아니라,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사덕은 사단이 행사된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덕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 지향하는 바를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 측은해 하면서도 서둘러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선한 마음 자체만을 따져 '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산의 관점에서는 먼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실천행위를 인이라 단정

14 박흥기, 앞의 책, 210~211쪽.

15 장승희, 앞의 책, 246~247쪽.

하고 어디까지나 ‘행사’ 즉 실천을 통해서만 인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¹⁶ 다산은 ‘인’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임금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라는 것이다. 사랑을 통하여 펼치는 정사가 인정이고, 윤리학의 임무는 이러한 인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다.¹⁷

다산은 기본적인 실천적인 덕목으로 효/제/자를 들었다. 그리고 ‘인’을 효/제/자의 총칭이라고 하였다. 효/제/자가 사람들 간의 외적 관계에서 이해된 덕목이라면, 인/의/예/지는 사람들의 마음, 내적 본성의 관점에서 파악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의/예/지도 특정한 관계 속에서 실행된 이후에 드러나는 실천적 덕목이란 점에서 효/제/자와 차이가 없다.¹⁸ 다산은 또한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한 ‘서’를 도덕적 실천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¹⁹ ‘서’를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결국 ‘인’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용한 방법으로 이해한 것이다. 다산은 극기를 자신에게서 비롯된 모든 악을 제거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행동으로, 복례는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았다.²⁰ 모든 덕의 총칭인 ‘인’을 이룩한 사람이 군자이고 성인이며, 참된 목민관이 될 수 있다. ‘서’는 역지사지를 통한 극기에서 시작하여 복례에 이르는 실천의 과정을 내포한다. 사단을 일깨우고 실천에 옮겨 ‘인’을 이루기 위한 기본원리가 ‘서’이고 ‘서’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가 극기라고 한다면, 다산의 윤리학은 ‘극기’의 윤리학이라

16 송재소, 앞의 글, 34쪽.

17 송재소, 앞의 글, 36쪽.

18 장승구, 앞의 책, 117~118쪽.

19 장승구, 앞의 책, 119~120쪽.

20 박홍기, 앞의 책, 240쪽 재인용.

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¹ 다산의 윤리학은 인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류의 실현이란 인간 상호간의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단합과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학의 과제는 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시에 유위의 기풍을 진작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회개혁론의 기본 이념을 마련하는 데 있다.

다산의 윤리학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고착된 둔세와 좌선으로는 덕을 이룰 수 없음을 천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적 실천 / 실용의 가치를 내세워 경제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학풍의 구성에 기여함으로써 그의 도덕철학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제학 성립의 전제는 윤리학과 윤리학을 보완하는 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4. 법학—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치인의 민권사상

원시유학의 기본적 정신은 수기와 치인에 있다. 법학은 치인을 위한 넓은 의미의 경제학의 한 부분을 이룬다. 다산은 공맹의 덕치에 순자의 법치를 들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성리학자들이 예약이나 형정을 잡사로 여기고 법률과 제도 등 치인과 밀접한 공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크게 개탄하며, 그들이 줄곧 강조하는 효 / 제 / 충 / 신도 행정의 도움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고경의 재해석을 통해 논증하려고 고심하였다.²² 그는 예에 바탕을 둔 법적 정의의 실현, 즉 덕치와 법치를 혼합한 예법일치를 추구하였다.²³

21 박흥기, 앞의 책, 22쪽.

22 박석무, 「다산의 법률관—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 『민족문화』 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120~124쪽.

다산은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지닌 욕망을 인정하였다. 그는 부와 귀, 즉 평민들의 경제욕망과 지식인들의 정치욕망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으로 꼽았다. 인간은 본래 잘 살려는 물욕과 귀한 몸이 되려는 신분상승욕구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기실현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개인의 욕구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다산은 확신하였다.²⁴ 인간욕망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산은 신기술개발을 통한 국부의 증진, 정치권력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인사 고과제 시행과 인재등용 개혁방안 등을 들었다.²⁵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는 개혁정신에 어긋나는 전래의 법은 비록 그것이 조종지법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다. 천리 또는 원형이정의 태극에 내포된 절대성을 부정하는 다산으로서는 기존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조종의 법제는 진선미하다고 한 율곡과 조종의 법제일지라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산의 차이가 여기서 명백히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변해야 한다고 다산은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의 법과 제도는 없다고 하여 변법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다산의 이러한 신념이 그의 도덕철학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²⁶

다산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욕망충족의 시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익에 앞서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국가중심의 집단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산은 국부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여 사익을 확보하고, 국가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계

23 박병호, 「다산의 법사상」, 한우근 외, 『정약용의 연구현황』, 민음사, 1985, 72~73쪽.

24 김태영, 「다산의 정전제론」, 송재소 외, 앞의 책, 158쪽.

2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서문집 5』, 민족문화추진회, 1997, 168쪽.

26 송재소 외, 앞의 책, 20~30쪽.

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였다. 그는 백성을 하늘이 낸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백성의 소망에 따라 만든 법은 하늘의 뜻, 즉 천리에 맞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예’이다,²⁷ ‘예’는 법가들이 강조한 ‘실정법’과는 다르며, 유가들이 중시하는 ‘관습법’과 같은 것으로서 ‘자연법’에 가까운 개념이다.

다산은 법과 통치의 일반원리를 분배정의에 두고, 정치를 정의로 규정하고 정의의 개념을 항상 균민, 즉 편익의 균등한 분배와 결부시켰다.²⁸ 그는 또한 분배정의의 실천여부를 나라의 흥망과 결부시켰다. 다산은 군주를 백성의 부모로 여기고 분배의 주체로 간주하였다. 이것이 다산의 법학을 신민을 다스리는 치인의 법학으로 부른 근거이다.²⁹ 그가 실정법을 예보다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정법에 따른 판결이 지닌 타당성의 근거를 인정이나 민심 또는 이민에서 찾고자 하였다. 민심이 곧 천리이며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천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본사상에 대한 다산의 입장을 보면, 하나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지만,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민본사상과, 다른 하나는 본래부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주권재민의 민본사상이다. 다산의 경제사상에서 민본론에서 민권론으로의 전환은 그의 법사상이 종래의 민본사상 내지 위민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을 본위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백성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근대적인 법적 권리를 역설한 것이다.³⁰

위에서 다산이 판례의 정의를 민심에서 찾은 것은 그의 예법일치의 사상을

27 박흥기, 앞의 책, 280쪽.

28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8쪽.

29 박흥기, 앞의 책, 292쪽.

30 정주환,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법학논총』 36(2), 단국대부설법학연구소, 2012, 35~36쪽.

정확히 반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산이 고대의 『주례』의 연구를 통하여 접한 ‘예’와 ‘법’의 일치, 즉 자연법과 실정법의 일치의 법사상은 예주법종에 더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법은 도덕과 무관하게 입법자의 순수한 의지를 추상적으로 공식화한 법가의 실정법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덕치 못지않게 법치를 강조한 다산의 법학이 도덕과 구분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효제와 충신을 실행하는 규칙으로서의 ‘예’ 속에는 오랜 기간 삶의 전반에 걸쳐 옳다고 생각해 온 윤리적 의식과 관행이 녹아 있어서 예법일치 혹은 예주법종은 윤리적으로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³¹ 다산은 행정론에서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교화의 목적을 원죄예방에 둔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목민관에게 ‘배움과 가르침’을 강조한다. ‘수기’에서는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서 목민관이 형률을 익혀 먼저 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백성들의 교화에 앞서 자신의 교화가 중요하고, ‘치인’에서의 교화는 백성이 ‘예’를 스스로 실천하고 법률과 목민관의 교호를 통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다산은 주장하였다.³²

다산이 예법일치 또는 예주법종을 견지하고 또 일반적 통치이념을 윤리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분배정의에 두어 그의 법학이 도덕철학체계에서 윤리학 및 정치경제학과의 역할구분이 모호하지만, 도덕률과 개혁적 정치경제사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31 박흥기, 앞의 책, 284쪽.

32 정우석, 『다산 정약용의 법인식과 교화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0쪽.

5. 경제학—나라와 개인을 안전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부국강병

다산의 경제학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야 그칠 것’이라는 다급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임병양란을 거친 망국의 위기의식에서 다산만큼 철저한 국가 개혁론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³³. 다산의 경제학은 대략 정치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으며 국가와 백성을 모두 부유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왕토적 국가운영 및 개혁론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산 경제학의 주요내용은 그의 『경제유표』와 『목민심서』 그리고 여러 단편적인 에세이에 실려 있다. 그의 경제학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제란 무엇인가? 관제, 군현지제, 전제, 부역, 공시, 창저, 군제, 과제, 해세, 상세, 마정, 선법, 영국지제 등을 시용에 구애되지 않고 경을 세우고 기를 베풀어 우리의 오랜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생각하는 것이다. 목민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법을 인하여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율기, 봉공, 애민을 기로 삼고, 이 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을 6전으로 삼고, 진황 1목으로 끝맺음하였다.³⁴

다산의 경제학은 흔히 17세기 후반 이래 18세기 전반까지의 경제치용학과 18세기 중후반에 대두된 이용후생학의 종합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치용학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혁론이고, 이용후생학은 상공

33 송재소 외, 앞의 책, 13~14쪽.

34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144~145쪽.

업의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개발론이다.³⁵ 다산은 국부를 화폐보다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로 간주하였다. 다산은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집단차원에서의 분배와 축적을 위한 생산을 더 중시하여 사/농/공/상이라는 사회 전체의 기능적 분업을 강조하였다. 쌀농사 위주의 농업경제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분업체제와 생산기술의 발전이 저조하다는 조선의 현실에 주목하여 다산은 전문적 분업을 통해서만 여러 생산기술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독자적인 명목과 실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다산의 경제치용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모든 제도개혁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조정기능을 국가에 집중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다산은 시장의 물가 조정 및 자원배분 기능을 분석하지 않았고 시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³⁶ 다산의 주된 관심은 대부분의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상업문제보다는 토지사유화의 진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 및 농업정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었다. 그의 토지개혁론은 사환기의 여전제론 유배시기의 정전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전제를 통하여 다산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백성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살림을 고르게 하는 것, 즉 균산을 얻고자 의도했다. 오랜 경학연구와 『주례』에서의 토지개혁의 법제에 따라 정전제가 단순한 토지제도가 아니라 토지의 구획, 관개시설의 건설 및 도로망구축 등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관련된 법제이며, 공평한 조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산은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정전제는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한다. 정전제는 전지를 균평히 배분함으로써

35 안병직, 「다산과 체국경야」, 『다산학』 5, 다산학술문화재단, 2004, 54쪽.

3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다산시문집 8』, 민족문화추진회, 1999, 214~215쪽.

만백성이 전지를 얻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큰 수확을 올리고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균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제와는 차이가 있다. 정전제에서도 다산은 국가의 본질을 군국으로 파악하고 도성의 방위에 필요한 상비군의 설치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는 여전제와 똑같이 시종일관 병농일치제를 주장하였다. 주곡 생산의 농업경제의 바탕 위에 부공제도를 운영하고 만민을 다시 9직의 분업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정전제는 종래의 비분업적이고 비생산적인 생산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통치행정의 개혁론이고 새로운 국가이론을 피력한 사례이다.³⁷

다산은 토지제도의 개혁론이외에도 조세와 교육 등의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상공업 등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에서 조세를 줄이는 동시에 전체 세수증대를 이루어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다. 세수증대는 이루어 낮은 세율을 통해 자의적 수탈을 방지함으로써 원거리 상업발전을 꾀하고 상인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다산의 조세정책론인 이른바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다.³⁸ 조세는 십일세로 하고 사족에게는 면세되고 서민에게만 부과되는 군포제를 혁파하고 구부제로 개정하여 민역의 균등을 다산은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세무에 있어 공정한 집행 감독하기 위한 장서원을 신설하여 징세를 빙자한 향리의 악행을 단속하고 계량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둔전법을 통해 군비를 충당하고 지방향리의 세비를 결정하고 세습제를 폐지하여 향리들의 결포를 방지하는 등 다산은 국가재정

37 송재소 외, 앞의 책, 205~225쪽.

38 조성을, 『정약용의 정치경제 개혁사상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1991, 101~102쪽.

확립과 국민경제의 부흥이라는 두 측면에서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³⁹

교육개혁론과 관련하여 다산은 교육이 효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강조하였다.⁴⁰ 그는 교육이 경제제민에 도움이 되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고전인문학뿐만 아니라 법학, 행정학, 재정학, 농학, 병학, 의약학, 기계학, 지리학 등 실용학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산은 아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동학습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학문입문 전의 아동들을 위한 기초자습서인 『아학편』, 아동들의 수신과 예의범절을 공부하기 위한 『제경』,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양지식의 함양을 위한 『소학주관』을 편찬하였다. 다산은 유교 중심의 인문학의 경계를 크게 확장하고 동시에 실용성과 공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관의 형성에 기여하였다.⁴¹

기술발전론과 관련하여 다산은 우선, 국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개혁을 선도하고, 그리고 이용감을 설치하여 중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그 기초로서 수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오로지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천부능력인 ‘지력’과 ‘교사’의 원리에 따라 기예를 습득하고 다듬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용후생과 복리후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유배 이전부터 기술발전론을 『기예론』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특히 사역원, 관상감에서 선발해온 학관인 기술직 중간계층 관리에게 목민관이나 찰방, 공이 많으면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부사와 같은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파격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정전

39 정주환, 앞의 글, 37쪽.

40 조성을, 앞의 글, 251~256쪽.

41 조성을, 「다산 정약용의 권학 사상-학문관을 중심으로」, 『윤곡사상연구』 21, 율곡학회, 2010, 357~360쪽.

제의 개혁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로가 큰 농민들에게 관직을 하사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양반관료체제에 새로운 계층 출신자들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런 신분제 개혁이라는 제도개혁론은 기술발전과 연결되어 이용후생학과 제도개혁론의 조합이라는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대변한다. 전환서를 설치하여 9종의 화폐를 주조하고 사치품의 수입에 따른 금은의 해외유출을 막고 이와 함께 신기술을 도입하여 수입대체 사치품을 육성하자고 다산은 주장하였다. 악기와 무기의 사조를 금하고 모두 전환서에서 주조하게 함으로써 기술자들의 이산을 막고 악기, 무기 등에 대하여 규격통일을 이룬 것 역시 제도개혁론과 이용후생학의 실용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다산은 상공업발전론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생각하였다. 상공업을 전문화시키기 위하여 특정 상공업지구를 왕성수도 및 읍치 내에 배치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론을 구상한 것이 「장인영국도」이며, ‘향수제론’은 도시와 농촌의 산업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과 상공업의 철저한 분업을 의미한다.⁴³ 사농공상의 분업에 따라 동일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여 거주해야 되고, 또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양반들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 / 공업 / 상업이나 교육 또는 연구 등 생산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산은 주장하였다. 사농공상을 신분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는 이중환의 『택리지』와 『사민총론』에서 제기되었다. 두 저서에 의하면 사가 따로 없고, 모두 같은 백성이고 어질고 덕이 있어 벼슬을 하면 사가 되는 것이고 벼슬하지 않으면 농공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산

42 송재소 외, 앞의 책, 410~418쪽.

43 송재소 외, 앞의 책, 445~446쪽.

은 이런 사고를 『주례』의 구직에 근거하여 일반화시켰다.⁴⁴

다산은 중농주의적 입장에서 초기엔 상공업을 경시하였으나 후기에는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에서 농업과 동등하게 보려는 견해를 보였다. 고액 화폐가 필요하다는 화폐 발전론, 교통과 통신을 발달시키기 위한 수레와 배 등의 제품규격의 통일, 그리고 도로설비와 보수를 적기에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 등은 모두 상공업 발전과 연관된 것이다, 이외에도 다산은 자원개발과 광업발전론과 관련하여 담배, 인삼, 차 등의 자원개발론을 통해 자연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국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영광산론을 제기하여 다산은 부상대고가 세도정권과 결탁하여 광산의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하였다.⁴⁵

다산의 경제학은 그의 도덕철학을 완성하는 마지막 하위체계를 이룬다. 경제학은 경제, 국방, 행정, 농업과 조세, 교육과 문화, 군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형이상학적 논변에서 벗어나 백성의 현안을 본격적으로 학문적 논제로 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결론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개혁적인 도덕철학체계를 신학, 윤리학, 법학 그리고 경제학, 즉 정치경제학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다산의 상제신학은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거를 제시하여 다산의 도덕철학

44 송재소 외, 앞의 책, 433쪽.

45 송재소 외, 앞의 책, 459쪽.

체계에서 주된 상위개념을 이룬다. 신학의 토대 위에 성립된 윤리학은 ‘인’과 ‘서’를 도덕적 실천의 기본원리로 제시하여 여러 사회현안 대한 자각과 변화를 일깨워 경제학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학풍을 조성했다. 다산의 법학은 법과 통치의 기본원리로 분배정의를 내세워 군주를 백성의 부모로, 분배의 주체로 여기고 신민을 섬기는 치인의 민권사상이다. 경제학은 무위이치에서 유위이치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는 정치경제 제도의 개혁론이다. 그의 도덕철학에서는 경제치용의 제도개혁론과 이용후생의 기술개발론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

다산의 도덕철학체계는 크게 경학과 경제학으로 구분되었다. 다산 경학은 당시 지식 집단인 유학자들의 낡은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 위해 이루어진 유교경전 연구 성과물이다. 그의 경제학은 백성 모두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제도적, 법적 방안을 구상한 부국강병의 사회개혁론이다. 나라의 통치시스템을 혁파함으로써 부정부패와 사상적 무질서의 낡은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하는 변법론적 구도를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다산의 개혁론은 결코 현실정치에 적용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다산학이 소환되곤 한다. 이는 다산의 개혁적인 도덕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 박홍기, 『다산 정약용과 아담 스미스』, 백산서당, 2008.
- 성태용, 「다산 철학에서의 계시 없는 상제」, 『다산학』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04.
- 송재소 외, 『다산 정약용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구총서 2, 사람의 무늬, 2013.
- 안병직, 「다산과 채국경야」, 『다산학』 5, 다산학술문화재단, 2004.
- 이동환, 「다산 사상에 있어서의 '상제' 문제」, 『민족문화』 19,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다산 철학의 근대성 연구』, 서광사, 2001.
- 장승희, 『다산 윤리사상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 1~10,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정주환,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법학논총』 36(2), 단국대부설법학연구소, 2012.
- 조성을, 「다산 정약용의 권학 사상-학문관을 중심으로」, 『울곡사상연구』 21, 울곡학회, 2010.
- _____, 「정약용의 정치경제 개혁사상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1991.
- 최석우 외,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 다섯수레, 1993.
- 한우근 외, 『정약용의 연구현황』, 민음사, 1985.

Abstract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Reformative Moral Philosophy System

Kim Sung-chul* / Kang Min-ku**

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Dasan Jeong Yak-Yong's Reformative Moral Philosophy System. Dasan Jeong Yak-yong 1762~1836 lived through the reigns of King Jeongjo and Sunjo, from the 38th year of King Yeongjo to the 2nd year of King Heonjong, a period of political, social and ideological disorder and extreme partisan fighting. Dasan found the core cause of the crisis so serious that the people died and the country collapsed in Juja Neo-Confucianism and Li-Ki(理氣)-theory, which were the ideologies of doctrinal order and governance in society at the time. Dasan criticiz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activity and Li-Ki(理氣)-theory, declared that Neo-Confucianism was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Confucianism, and insisted that the pure teaching of Confucius and Mencius should be reestablished in its place. Dasan first rearranged the Confucian Gyeonghak system and expanded it into the Six Classics system by adding the three classics of Spring and Autumn, Ye, and Ak to the Four books and the Three Classics system that was in use at the time. His study of Chinese classics means a detailed interpretation and extensive commentary on the whole Six Classics and the Four books. Dasan understood Jiin and Anmin as the two pillars of Gyeongseahak. Jiin is to appoint talented people to the right place according to ability, and Anmin is to enrich the lives of the people. If these two things are practiced,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task of government is completed.

In his system of moral philosophy, Gyeonghak, Yehak, and Gyeongseahak ar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because they all contain the contents for self-cultivation and governance at the same time.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original name of 『Gyeongseyiupyo』 is 『Bangryechobon』, Gyeongseihak is both Yehak and Gyeonghak, and even in the case of 『Heumheumsinseo』, Gyeongseihak is no different from Yehak. Therefore, in this paper, Dasan's studies are broadly divided into Gyeonghak and Gyeongseahak, and we try to understand Dasan's

* Sehan University.

** Sehan University.

reformative moral philosophy.

Keywords Dasan Jeong Yak-yong, Reformative Moral Philosophy system, Yukgyeongsaseo, Gyeonghak, Gyeongsaehak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